

서울노회 성서학당

역사적 예수와 바울의 도전

The Challenge of the historical Jesus & Paul

4강 : 바울의 에클레시아(교회) 운동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이끄는 이
정 원 진 목사

바울을 이해하는 방법

- 바울을 16세기 종교개혁의 세계로부터 구출하여 그의 본래 자리인 1세기 로마 세계 속에 자리매김 하라!
- 그를 처형당하게 한 그 언어로 바울이 스스로 말하게 하라!
 - 제국의 불의에 대항한 하나님의 정의
 - 로마 제국주의 신학에 대항한 그리스천 유대교 신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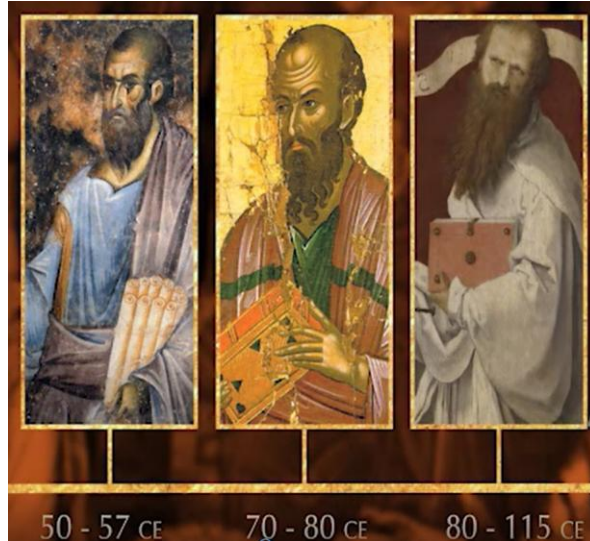
바울 서신의 자기 모순?

- 빌레몬서에서 바울은 분명히 노예제도를 반대했다.
- 그런데 골로새서 3:22-4:1와 에베소서 6:5-9, 그리고 디도서 2:9-10를 읽어보면 바울은 노예제도를 옹호하는 듯이 말한다. (종에게는 순종을, 주인에게는 의와 공평을 권면한다.)
- 왜 그럴까? 왜 바울 서신은 자기 모순적(self-contradictory)일까? 그 이유는...

학자들의 바울서신 분류

저자 구분	진위 구분	바울서신 13통	시대	성격구분	저술시기
바울이 쓴 편지들	진짜 바울서신 (Historical-Paul)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데살로니가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Paul 바울	Radical Paul 급진적인 바울	주후 50-57
저자가 불확실한 편지들	논쟁 서신	에베소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후서	post-Paul 바울 이후	Conservative Paul 보수적인 바울	주후 70-80
바울이 쓰지 않은 편지들	목회 서신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		Reactionary Paul 반동적인 바울	주후 80-115
	가짜 바울서신 (Pseudo-Paul)				

세 명의 바울



가짜 바울=반(反) 바울

- 바울이 **죽은 후에**(post-Pauline) 그의 이름으로 기록된 **가짜 바울**(pseudo-Pauline) 편지들은 바울 신학의 중요한 측면과 관련하여 **반(反)바울적인**(anti-Pauline) 편지들이다.
- 이 편지들은 바울을 **길들인**(de-radicalize) 편지들로서, 급진적 유대인이었던 바울을 **로마의 문명과 문화에 동화되도록** 만든 편지들이다.
- 즉, 노예제와 가부장제를 **반대했던** 바울을 **옹호한 바울로** 뒤바꿔서 **왜곡해** 놓았다.

탈급진화 사례 연구

- 노예제와 가부장제에 대해서는 **YouTube강좌** <역사적 바울의 도전> 9강과 10강을 참조하고, 여기서는 고린도 공동체에서 행해졌던 '**주님의 만찬**'(Lord's Supper) 문제만 살펴보자.
-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공짜 치유와 열린 밥상공동체**로 중심으로 전개됐는데, 이는 하나님 나라의 **급진적/근본적(radical) 평등성**을 드러냈다.
- 이를 계승한 것이 초대 크리스천 공동체의 **주님의 만찬**이다. 주님의 만찬은 단순히 빵 한 조각과 포도주 한 모금을 마시는 '**의례**'(ritual)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식사, "**식사 나눔**"이었다.

Lord's Style vs. Roman Style



A Roman Style of Supper



로마식 만찬 대 주님의 만찬

로마식 만찬	주님의 만찬
위계 있음	위계 없음
서로 다른 음식	똑같은 음식
차별적 자리(식탁)	똑같은 식탁(자리)
불평등	평등
문화에 순응	문화를 거역

고린도의 부유한 크리스천들

- 고린도 공동체에는 부유한 크리스천들도 있었다.
- 재정적인 문제를 세상 법정에 고소하는 문제(6:1-8), 아버지가 죽어 과부가 된 계모와 그녀의 의붓아들이 유산을 지키기 위해 서로 결혼하는 문제(5:1-13), 이교도 신전들의 향연에 참석하고 그런 모임에서 제물로 바쳐진 짐승의 고기를 사다가 먹는 문제(10:14-33) 등은 가진 자들의 문제였다.
- 귀족들은 당시에 누구나 정상적인 것으로 간주했던 사회적 위계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 이런 맥락 속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행해진 주님의 만찬 방식에 대해 말한다(11:17-34).

고린도전서 11:17-22

¹⁷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¹⁸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 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²⁰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²¹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²²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라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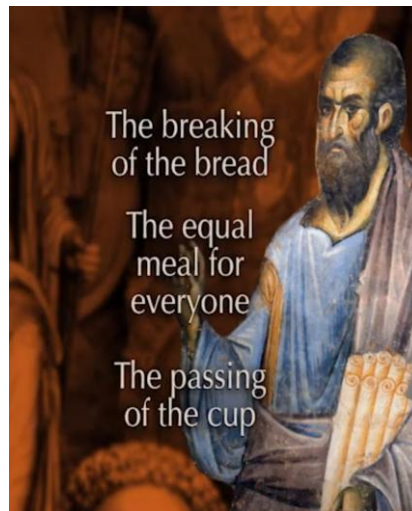
고전 11:17-22의 맥락

이 부분의 마지막인 11:33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이것이 뜻하는 바는 어떤 사람은 일찍 도착해서 즉시
 먹고 마시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일찍 도착한 사람은
 누구였겠는가? 생계를 위해서 노동해야 했던 사람이
 아니라, 여유가 있던 사람, 즉 부유하고 권력이 있던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들이 일찍 도착해서 주인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다 먹으면, 늦게 도착한 이들은 남은
 맛없는 음식을 먹었다. 이것은 주님 스타일의 만찬을
 당시 세상의 사회적인 위계질서와 불평등을 그대로
 반영하는 로마 스타일의 만찬으로 환원한 것이었다.
 이것이 바울이 꾸짖는 것이며, 그가 경고한 맥락이다.

바울의 해결책

빵을 떼는 것으로 주님의
 만찬을 시작하고, 곧 이어
 공동식사를 한 후, 식후
 에 잔을 돌리는 것으로
 마치라!

평등한 예식 후 불평등한
 식사가 이어지지 않도록,
 만찬의 처음과 중간, 끝
 모두 평등을 유지하라!



몸을 분별하라!

- 고전 11:29절의 “몸(body)을 분별하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공동체를 가리킨다.
- 고린도에서 주님의 만찬이 진행되던 방식은 “그리스도 안”(in Christ)에서의 삶을 표상하는 “한 몸”(one body)을 모독하는 것이었다. 즉, 이는 “이 세상”의 계층적 차별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져오는 것을 뜻했다.
- 그러나 이러한 분리와 차별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불리는 공동체 안에 복제되어서는 안 된다. 크리스천 공동체 속에서 그와 같은 분리와 차별은 이미 폐지되었기 때문이다.

바울의 에클레시아

- 바울은 공동체를 만들었으며, 사람들을 개종시켜 공동체 안에서의 새로운 생활, 즉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함께 사는 생활로 이끌었다.
- 교회라고 번역된 그리스어 원어는 ‘에클레시아’다.
- Ekklésia는 ek(from out)와 kaleo(call)의 합성어로 그 뜻은 “(세상) 밖으로 부름”이다.
- 그리스 시대에 ‘에클레시아’는 ‘시민들의 모임’인 ‘민회’(民會)를 뜻했다. 그런데 당시 시민에는 여자나 노예, 그리고 야만인(이방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 하지만 바울의 ‘에클레시아’는 그들까지도 포함했다.

- 바울은 세례를 받고 에클레시아에서 '한몸살이'를 하게 되면 여자와 남자,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다고 했다. 즉 하나님을 家長(아버지)로 모시고 모두 형제자매가 되어 상부상조 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았다.
- 이는 예수가 갈릴리 농촌 마을에서 활동했던 것과 달리 바울은 주로 로마 속주의 수도(capital)에서 활동했기 때문인데, 고향을 떠나 대도시로 이주한 도시빈민들의 가족은 질병 등의 이유로 쉽게 해체되었다. 따라서 에클레시아는 그런 이들에게 대안 가족이 되어 주었던 것이다.

- 열린 밥상공동체와 공짜 치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한 예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바울은 하나님 아래서 모든 가족이 평등한 이상적인 가정인 '에클레시아'를 통해 재현했다. 따라서 그 속에서 차이는 있었어도 차별은 없었다(역할 분담). 그것이 바로 '한 몸—여러 지체'라고 묘사된 유기적 공동체로서의 교회 모습이다.
- 한 에클레시아의 규모는 수십 명이었는데, 그들이 모이 곳이 주로 상가교회(3m×6m)였기 때문이다.
- 그들은 모일 때마다 '주님의 만찬'을 나누었고, '세례'로 입회의식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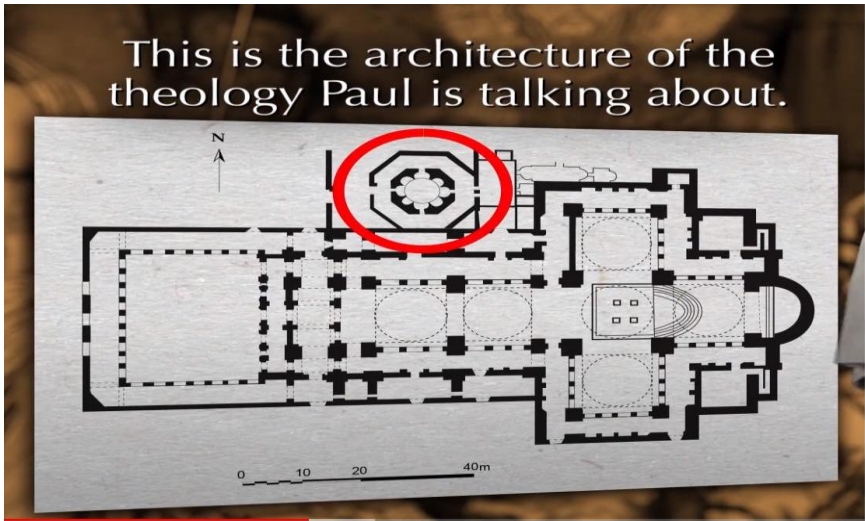
세례 : 로마서 6:3-4

- All of us who have been **baptized into Christ Jesus**, were **baptized into his death**.
- 그리스도 예수 속으로 세례를 받은 우리 모두는 그의 죽음 속으로 세례를 받았다.
- Therefore we **have been buried**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 so that, just as Christ was raised from the dead by the glory of the Father, so we too might walk in newness of life.
-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묻혔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죽어 있는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새로운 생명 안에서 거닐 수 있기 위함이다.

도대체 무슨 뜻?

- “누군가의 죽음 속으로 세례를 받는다”(to be **baptized into somebody's death**)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인가?
- 특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났다고 말하는 것--we **have been buried** with him by **baptism into death**--은 무엇을 뜻하는가?
- 그 의미 파악을 위해 크로산은 우리를 세례 신학에서 세례 건축물(architecture)로 데려간다.
- 그것들은 교회나 세례장이 없었던 1세기가 아닌 콘스탄티누스의 평화 이후 4-6세기에 등장하는데, 세례반(盤)이라기 보다는 세례무덤에 가깝다.

세레 신학의 건축화



그리스 파로스섬 교회(326년) 세레반



에베소의 성 요한 교회(6세기) 세레반



세레 건축물의 의미



(십자가) 죽음 - (무덤) 매장 - 재창조(물)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세례의 의미

- 예수는 로마의 법과 질서로 변장한 로마의 폭력과 불의를 거부하고 반대했다는 이유로 로마제국에 의해 십자가에서 로마의 반역자로 처형되었다.
- 예수는 로마에 의해서(by)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to) 죽었다. 그리고 하나님에 의해서(by), 하나님에 대해서(to) 부활해서 하나님과 함께(with) 살아있다.
-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세례 의식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at-one-ment) 신앙공동체의 일원이 된다. 그런데 이 세례 의식은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상징적으로 재현하는 것이었다.

롬 6:3-5

-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이미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모르십니까? 과연 우리는 세례를 받고 죽어서 그분과 함께 물렸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죽어서 그분과 하나가 되었습니다."(롬 6:3-5)
- 바울이 살아 있는 크리스천들에게 계속해서 과거 시제로 말하는 것(위 밑줄)은 그리스도가 로마에 의해(by) 처형당하고 죽은 것처럼, 크리스천들도 세례를 받아서 로마에 대해(to) 죽었으며, 이제 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세례 과정의 의미

- 세례 의식은 세례반(洗禮盤) 속에서 몸을 씻는 것이 아니었고 무덤에 묻히는 것이었다.
- 즉, 크리스천은 로마인으로서 세례반 계단을 내려갔지만, 거기서 로마의 가치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서 반대편 계단으로 올라왔다.
- 세례를 통해서 크리스천들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로마에 대해서(to) 죽고, 예수를 위해서(for) 예수 안에서(in) 부활한 삶을 살게 된다.

로마에 대해 죽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기

- 따라서 세례는 단순히 교회의 일원이 되는 '입교 의식'을 뜻하지 않았다. 로마, 즉 세상(가치)에 대해서(to) 죽고, 하나님을 위해서(for) 다시 태어나는 것을 가리켰다.
- 다시 말해,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던" 옛사람을 버리고, "하나님이 뜻을 분별하여 따르는"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뜻했다.
- 새사람은 세상 '속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해서' 살지 않고, 세상과 '다르게' 산다. 에클레시아에 속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세상 속에서 하늘 백성/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된다.

정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라!

- 그래서 바울은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롬 6:11)고 했다.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다"(갈 6:14)고 한 것이다.
- 이 말은 세상이, 세상 풍조가, 세상 가치가 더는 나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말이다. 그러니 세상은 나에게 죽었고, 세상에게 나는 죽은 존재인 것이다. 이제 내 주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며, 나는 의의 연장-정의의 도구(롬6:13)로 살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3:27-29

- 무엇을 위한 의의 연장-정의의 도구인가?
- “세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into Christ) 들어간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로(with Christ) 옷 입었습니다.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in Christ) 여러분은 모두 한 몸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갈 3:27-28)
- 당시 세상의 가치는 분리와 차별이었다. 인종 및 종교차별, 계급차별, 남녀차별이 로마를 제국이게 한 힘이었다. 교회는 차별 없는 하나님 나라의 현존이었고, 교회의 확산은 곧 하나님 나라의 확산이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